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2>



네 부류에도 못 드는 '우리'

부처님께서 라자카하의 죽림정사에 계시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말이 있다. 첫 번째 말은 안장을 올려놓고 채찍의 그림자만 보여주어도 달리는 말이다. 말을 모는 사람의 기미를 잘 관찰하여 적당하게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잡기 때문에 마부의 의도대로 따라 행한다. 두 번째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고 정황을 알아채는 능력은 없지만, 채찍이 그 털끝을 스치기만 하면 곧 놀라서 말 모는 이의 마음을 어느새 살피고는 적당한 속도와 방향을 잡아서 달려 가는 말이다. 세 번째 말은 채찍 그림자를 보거나 채찍이 털끝에 스쳐도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지만, 채찍으로 살갓을 조금 때리면 곧 놀라서 말을 모는 이의 마음을 살피고는 적당한 속도와 방향을 잡아서 달려가나, 등에 채찍이 떨어져야 달리는 말이다. 네 번째로 좋은 말은 채찍으로 등을 얻어맞고 고삐를 잡아채야 달리는 말이다. 이 말은 그 어떤 기미도 알아채지 못하다가 제 몸에 채찍이 모질게 와서 박혀 상처가 나야만 비로소 끄박

마음을 내서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런 사람은 채찍으로 살이 패이고 뼈까지 다치고 나서야 비로소 달려 나가는 네 번째 말과 같은 사람이다." <잡아람경>에 들어있는 '채찍 그림자의 경(鞭影經)'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한 해가 서서히 그 긴 그림자를 접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역시나 수많은 사건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모(威嚇)의 신문은 또 한번의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밀양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입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가해자가 다수의 고등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한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그 사건을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의 마음자세와 행동거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사건의 진실인지도 모르게 번져 버린 데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책임이 큼니다. 게다가 사건만 띄워놓았을 뿐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결책을 들려주려는 진지한 자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저 혼자 정신없이 뛰쳐 놓고 가버리니 다음해인 사람은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일선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라, 가해자와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분류하라, 사회에서 마구잡이로

끔찍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무책임한 언론 대한민국 성인들에게 그저 '남의 일'인가

놀라 수레를 끌고 달리는 말이다. 바른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도 네 부류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웃 마을의 누군가가 병들어 고통 받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한다는 말만 듣고도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생각을 일으켜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마치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곧 정황을 파악해 달려 나가는 첫 번째 말과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람은 이웃 마을에서 누군가가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곧 생사를 두려워하여 바른 마음을 일으켜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채찍이 털끝을 스치기만 해도 어느새 말을 모는 이의 마음을 따라 달려 나가는 두 번째 말과도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앞의 두 사람 같지는 않지만 친척이나 친구, 자기 동네 사람이 병들어 신을 하디 죽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아야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열심히 공부한다. 이는 살갓을 조금 맞고 나서야 비로소 말을 모는 이의 마음을 따르는 세 번째 말과 같은 사람이다.

네 번째 사람은 제 자신이 늙고 병들어 고통 받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생사를 두려워하는

쏟아져 들어오는 질책을 감당하라, 그리고 '자기 고장의 명예'를 지키라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당국과 그 학생들의 선생님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채찍이 자기 살을 때려서 피가 나고 뼈가 허열계 드러난 지경인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보지만 해도 우리의 청소년들을 염려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너무나 태평스럽습니다. 자기 자식이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닌 자식은 그만두고라도 자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만약 부처님이 계시다면 위의 네 가지에 틀림 없이 하나를 더하셨을 것입니다. 고통이 이미 침범하여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제 몸이 썩어가 는 줄도 모르는 중증 마약 중독자와 같은 부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류에 분명히 이 사건과 연관된 무수한 우리 한국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울러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 이미평(한국경제신문 특약위원)



법인 스님

(천안 각원사 주지)

갈 때나 올 때나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뜻의 '수좌(首坐)결음'이라는 말이 있다.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스님들의 행보를 비유한 말이다. 천안 각원사 주지 법인 스님의 행보도 '수좌결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여년간 각원사를 명실상부한 거찰로 일구어 놓은 후 미련 없이 재일(在日) 포교당인 도교 명월사로 떠나 해외포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12일, 초하루 법회에서 만나 뵈는 법인 스님은 전날 새벽에 일본에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대중을 맞아 가르침을 주셨다.

모든 수행법의 바탕은 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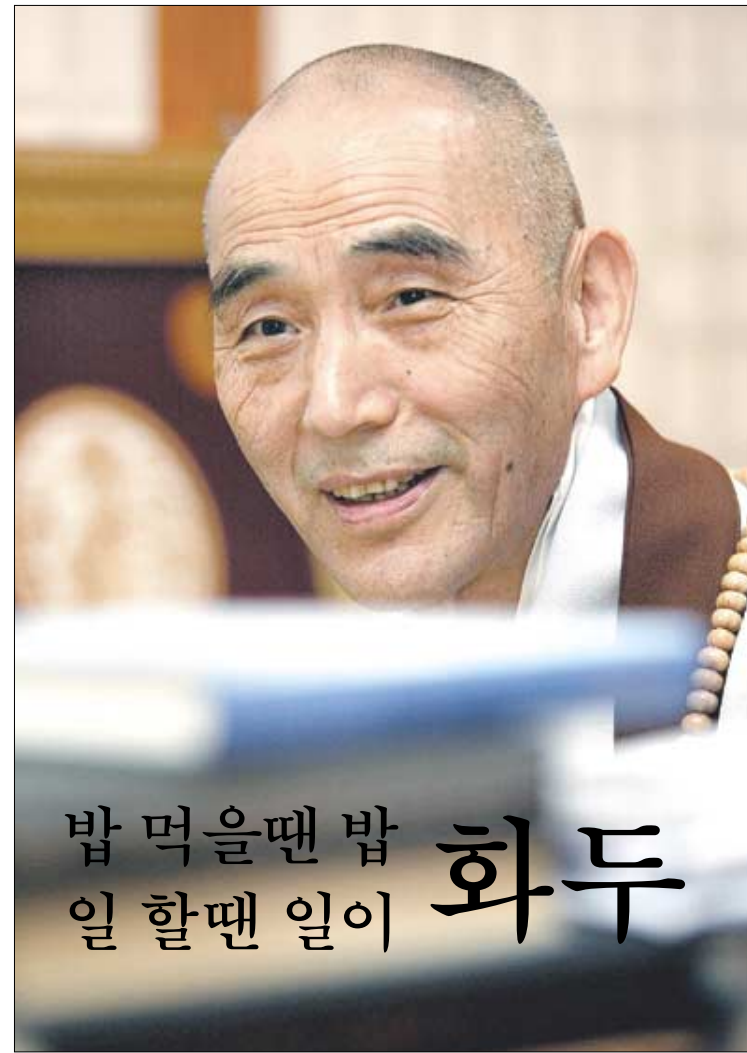
▲최근 승산 스님의 입적으로 해외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30여년 전 일본에 명월사를 열고 재일동포 포교에 앞장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에 있어서는 불교계가 이만저만 각성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전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신발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어떻게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계는 다른 종교의 포교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각원사는 현재 해외포교원으로 일본 도쿄의 명월사와 시모노세키의 광명사, 미국 필라델피아의 관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년 고찰에 있어만 있다고 포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하루 빨리 해외포교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해는 재가자들 사이에 수행, 그중에서도 간화선 열풍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재가자들의 수행 열기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에만 치중하 나머지 교학(敎學)은 관심 밖이라는 우리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학 안나오고 기자를 할 수 있나요? 박사학위를 받지 않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나요? 교통법규를 안배우고 운전할 수 있나요? 교(敎)란 그런 것입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참선 운운하면 우선 기본이 되는 교리 공부부터 하라는 말로써 질책합니다. 모든 사상과 철학적 비전은 학문과 교육을 통해서 정립될 수 있으며, 교를 바탕으로 선정(禪定)과 기도, 주력 등을 수행하여 불법 전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때 밥 화두 일 할때 일이 화두

출가후 50여년 동안 교학과 수행, 포교, 불사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던 법인 스님. 스님은 "원을 버리게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가끔 저에게 선과 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와 선, 선과 교라는 비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기도를 하건 주력을 하건 모든 것은 교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식과 학문적인 체계를 일체 벗어 던지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불성(佛性)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을 불교 수행자들이

▲교를 바탕으로 한 후 수행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화두를 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화두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뜬구름 잡듯 생각만 하는 것이 화두나 수행이 아닙니다. 요즘 일부 수행자들은 '화두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무조건 화두만 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면서 '무(無)자 화두를 들어야 하나요? 밥 먹을 때도 '이렇고' 해야 하나요? 운전을 할 때는 운전이 집중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집중을 하고, 일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밥 먹는 것으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때는 밥이 화두입니다. 밥 먹을 때는 밥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선이나 염불을 하다보면 깨달음의 길이 요원하게 느껴져 답답하기도 한데요.

-어릴 적 아버님께서는 집 근처 손수 거꾸셨던 수수밭으로 저를 데리고 가실 때 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수수대를 뛰어넘는다면 수수대가 제

敎 아닌 알음알이 경계해야

취해야 할 열매나 꽃으로 여기면서도 교는 소홀히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행자들 가운데서도 선과 교를 다르게 여기는 이들이 많은데, 이는 단순히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교리 공부도 없이 무조건 거부되고 면박한다고 해서, 묵묵히나 요령 들고 염불한다고 해서 8만4천의 부처님 말씀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서산 스님이 <선가귀감>에서 경계하신 것은 교(敎)가 아니라 알음알이라는 사실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

팔모점등

실용신안 등록 의장출원

팔모조립등

보관상태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중 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곡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참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아무리 높이 자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성격보다는 근면과 끈기,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었지요. 그 가르침 덕분에 저는 출가한 이후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올리는 기도예불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공부도 수행도 단 시간에 그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을 빠르게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는 가르침을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물질문명 시대를

울원, 시대에 맞는 계율 제시해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버리고 비우라'는 가르침은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땀은 100원어치 밖에 안 흘렸는데도 1000원을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돈을 세는 단위인 원이나 일본의 엔(圓)을 보십시오. 둘 다 등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돈은 들고 도는 것인데, 주고받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 스스로 땀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주고받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주고받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이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경제 여건이 안된다면 그런 곤란하죠. 일례로 도로 명월사 근처에는 파 한쪽에도 가격표를 붙여 놔줍니다. 그만큼 거매를 공정하고 땀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1974년 김영조 거사가 보시한 땅에 지은 명월사를 곧바로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했다. "귀국 후 명월사를 팔아 국내에 사찰을 지으시라"는 김 거사에게 스님은 "명월사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재일동포들의 인식처로 남기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감명을 받은 김 거사는 높이 15m, 무게 60톤에 달하는 청동대불을 다시 보시했다.

▲계율은 오늘날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오계를 받고도 실천을 하지 못할까 두려워 계를 받지 않는다는 재가자들도 있습니다.

-계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화생이 교칙만 잘 지키고 우등생이 되는 건 아니지요. 교칙을 잘 지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출원은 전통계율에 대해 연구하고 시대에 맞는 계율을 제정해 불자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계율을 '자비하라'는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생명을 죽이

지 않고 육식을 하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라는 큰 가르침을 간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면 계에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부처님 당시의 계율정신에 맞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실제 각원사의 '사훈(寺訓)' 중의 하나가 '자비'일 정도로 스님은 대중들에게 '자비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십니다.

▲스님은 40여년 동안 배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학문을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선을 하지 않고 경학이나 학교니 하여 글공부를 한다는 것은 도리어 번뇌 망상에 빠지게 된다고 힐난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강원에서 신문이나 잡지, 소설 등을 읽거나 영어, 일본어 같은 외국어공부를

교육·복지 도량 만들면 포교는 절로

하다가 어른 스님의 눈에 띄면 호되게 야단을 맞았지요. 그러나 저는 공부에 힘을 세웠습니다.

언제나 "좋은 스승을 만나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세속 공부를 많이 하면 환속한다'는 인식 때문에 제 별명이 '환속 후보 1호'일 정도였어요.(웃음) 절에서는 승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해 등학교길에 신도 집에서 교복과 승복을 갈아입고 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더해진 것입니다. 모름지기 공부도 수행도 간절한 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명월사와 각원사 창건이라는 대작불사를 이끌어 온 법인 스님. "지금까지의 불



각원사 재일 포교원 명월사에 머물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법인 스님은 "자비라는 큰 가르침에 따라 행동한다면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복지 도량 만들면 포교는 절로

사는 포교의 틀을 닦기 위한 것"이라는 스님은 "이제부터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불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원사는 불교대학과 어린이집 개원에 이어 앞으로 원안 지역불자들의 교육장이 될 불교회관과 연수원을 건립하고 양로원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 복지를 위한 도량을 만들면 포교는 저절로 된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인타부를 마치고 기자를 배웅하려 나온 스님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봉안한 청동대불을 가리키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이제는 남북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화통일이나 흡수통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자연히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법인 스님은

편한 길 마다하고 ദ서 손수 아침 지어먹으며 한국불교 알리기 일념

“법인(法印) 스님은 교회를 넘긴 세수에도 손수 아침밥을 지어 드십니다. 국내에 계시면 시자들의 시봉을 받으며 편히 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과 해외포교를 위해 한시도 몸을 편히 두지 않으시는 참된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각원사 사무장을 맡고 있는 박기환 씨에게 법인 스님에 대해 물자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상좌인 각원사 총무 대원 스님은 “은사 스님은 시대 불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한다.

16살에 출가해 50여년 동안 교학과 포교에 매진해 온 법인 스님은 아침 예불과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각원사를 장건할 때는 현장에 임시 막사를 지어 생활하며 허름한 적삼과 밀짚모자 차림으로 인부들과 함께 공사를 하기도 했다.

각원사 처소인 경해원(鏡海院)에 '자언애어(慈願愛語)'라는 문구를 걸어두고, 제자들과나

천년을 이어 가는 생명의 잠자리!!!

부모님께 활력을!!! 후손에게 가보려... 대를 이어 전하세요.

- 1 인 보 료 - 값 4,000,000원
- 보급형보 료 - 값 2,800,000원 (체격이 작은분)
- ※ 보료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희담석 방식을 선물로 드립니다.

생명의 돌, 생체활성 메카니즘 -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구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성민 분쇄석 및 희담석 파동암석을 통해 인체에 생체활성을 부여하는 유익한 메카니즘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한 것이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양생되는 한적의선의 결과 양은 여타의 재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건강을 생각하는 희담석 찜질팩

그냥 사용해서도 강력한 원리작용이 발휘됩니다

■ 희담석 머리 찜질팩 값 44,000원
 ■ 희담석 어깨 찜질팩 값 66,000원
 ■ 희담석 찜질팩 값 38,000원

[이럴 때 사용에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팩 원하시는 분
- 야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체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즈에 대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담석의 모든 찜질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이므로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된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22
 ☎(02)732-1520 www.mahamall.co.kr